

현대오일, 임직원 연봉 1% 사회환원

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의 연봉 1%를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월3일 발표했다.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연봉의 1%를 모아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추석 이전에 기부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부비율이나 참여자 수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봉의 1% 정도를 내는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직원은 1800여명이며 평균 연봉은 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연봉을 정유업종의 상위층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올려주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1/09/05>